

#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 慶州地域出土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

周 旻 美\*

## 차 례

I. 前 言	IV. 三國時代의 後期 耳飾
II. 三國時代 耳飾의 形式과 製作 技法	1. 第3期(5세기 초엽 - 5세기 중엽)
1. 三國時代 耳飾의 形式 分類	2. 第4期(5세기 말엽 - 6세기 초엽)
2. 三國時代 耳飾의 製作 技法	3. 第5期(6세기 초엽 - 7세기 초엽)
III. 三國時代의 前期 耳飾	V. 三國時代 耳飾의 意義와 影響
1. 第1期(4세기 중엽)	VI. 結 論
2. 第2期(4세기 말엽)	

## I. 前 言

삼국시대에는 고분에서 출토된 화려한 금속세공장신구들을 중심으로 독특한 金屬工藝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 耳飾은 출토 양이 많고, 지역별·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뛰어난 제작기법을 보여주는 주요 부장품의 하나로 주목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삼국시대 고분 출토의 금속공예연구는 화려하고 독특한 金冠과 冠飾의 분포와 기원 연구에 집중되어 있을 뿐, 금속공예사적 측면에서의 耳飾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삼국시대 耳飾에 관해서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고학계 내에서의 耳飾 연구는 대체로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국가별 형식분류 연구가 중심을 이루며, 출토 유형이 가장 풍부한 신라 耳飾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 고찰되었으며, 또한 耳飾 제작에 사용된 금속세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1) 고구려 耳飾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리일남, 「고구려귀걸이의 형태와 기법」, 『조선고고연구』 80(1991.3.), pp.31-36. 박영복·김성명, 「중부지역발견 고구려계 귀걸이」,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 (1990), pp.584-598. 孫仁杰, 「集安出土的高句麗金飾」, 『博物館研究』 9(1985.1), pp.97-100 참조.

백제 耳飾에 대한 연구는 백제 耳飾의 출토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다. 박영복, 「백제장신구」, 『韓

공기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형식분류만을 연구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耳飾의 발전과정의 全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sup>2)</sup>

耳飾에 관한 당시의 문헌기록에는 耳飾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sup>3)</sup> 同 시대의 고분벽화나 삼국시대의 불교조각품들에서는 현존하는 耳飾과 유사한 형태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耳飾의 연구는 실물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sup>4)</sup>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시대의 耳飾은 수백여점에 이르른다. 한편 출토지가 확실한 431점의 垂下付耳飾의 분포도(圖 1)를 보면, 약 반 수 이상이 경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삼국시대의 耳飾의 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주지역 출토의 垂下付耳飾을 기준으로 편년을 시도하였다.

현재 알려진 耳飾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관이나 요패의 垂飾으로 사용되었던 것들도 형태가 유사해서 耳飾으로 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sup>5)</sup> 耳飾이나 垂飾이라고 불리는 ‘耳飾’ 형태의 금속 세공 공예품들이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國考古學報』 22(1989.6), pp.73-126. 伊藤秋男, 「武寧王陵發見の金製耳飾について」, 『百濟研究』 5(1974), pp.199-220 참조.

신라·가야지역의 耳飾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의 耳飾연구가 이 지역의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루어 왔다. 尹世英, 「新羅耳飾의 型式學的 一考察」, 『고대문리대논집』 2(1984), pp.173-186과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17(1974.12), pp.41-108. 李仁淑, 「古新羅期 裝身具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 62(1974), pp.35-73과 「伽倻時代 裝身具 樣式考」, 『韓國學論集』 14(1988.8), pp.25-64와 「신라와 가야의 裝身具」, 『韓國古代史論叢』 3(1992), pp.61-136. 李漢祥,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 裝身具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8).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pp.273-300. 谷畑美帆, 「日本及び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について」, 『考古學研究』 40(1993), pp.86-107. 藤田亮策, 「朝鮮及び日本發見の耳飾について」, 『朝鮮考古學研究』(1948). 伊藤秋男, 「耳飾의 型式學的研究に基づく 韓國古新羅時代古墳의 編年에 關する 一時論」, 『朝鮮學報』64 (1972), pp.15-73 참조.

- 2) 耳飾 자체의 금속공예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성효인, 「한국 고대 귀고리 양식과 세공기술」, 『家政』 16(1969), pp.198-216과 權吉重, 「新羅 金工術의 工程的 究明」, 『디자인·포장』 21(1975.6), pp.52-57 등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 3) 耳飾에 관한 문헌기록은 거의 없지만, 『舊唐書』 志 第九 音樂의 “高麗樂…舞者四人椎髮於復 以降夫額 飾以金璫”이라고 한 기록이 있으며, 『翰苑』 高麗條의 “高麗婦人衣白 而男子衣 結錦…穿耳以金環”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당시에는 귀를 뚫어서 耳飾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李仁淑, 앞 글(1974), p.47에서 재인용.
- 4) 본 논문의 자료수집과 실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외 각 지방 국립박물관, 경상대학교 박물관 및 여러 대학박물관의 학예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5) 이제까지는 主環만 있는 것, 또는 主環과 垂下部로 이루어진 형태의 금속공예품을 ‘耳飾’이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형태 중에서 垂下部가 지나치게 긴 것과 출토위치가 확실하게 관이나 요패의 垂飾으로 사용된 것들은 ‘垂飾’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耳飾과 垂飾은 출토위치와 상황을 제외하고는 형태, 제작기법 등이 동일한 금속공예품이다. 이들 耳飾形 垂飾의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有光教一은 太環耳飾이 모두 垂飾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를 발표하였으나,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有光教一, 「新羅의 太環式金製垂飾について」, 『朝鮮學報』 88(1978), pp.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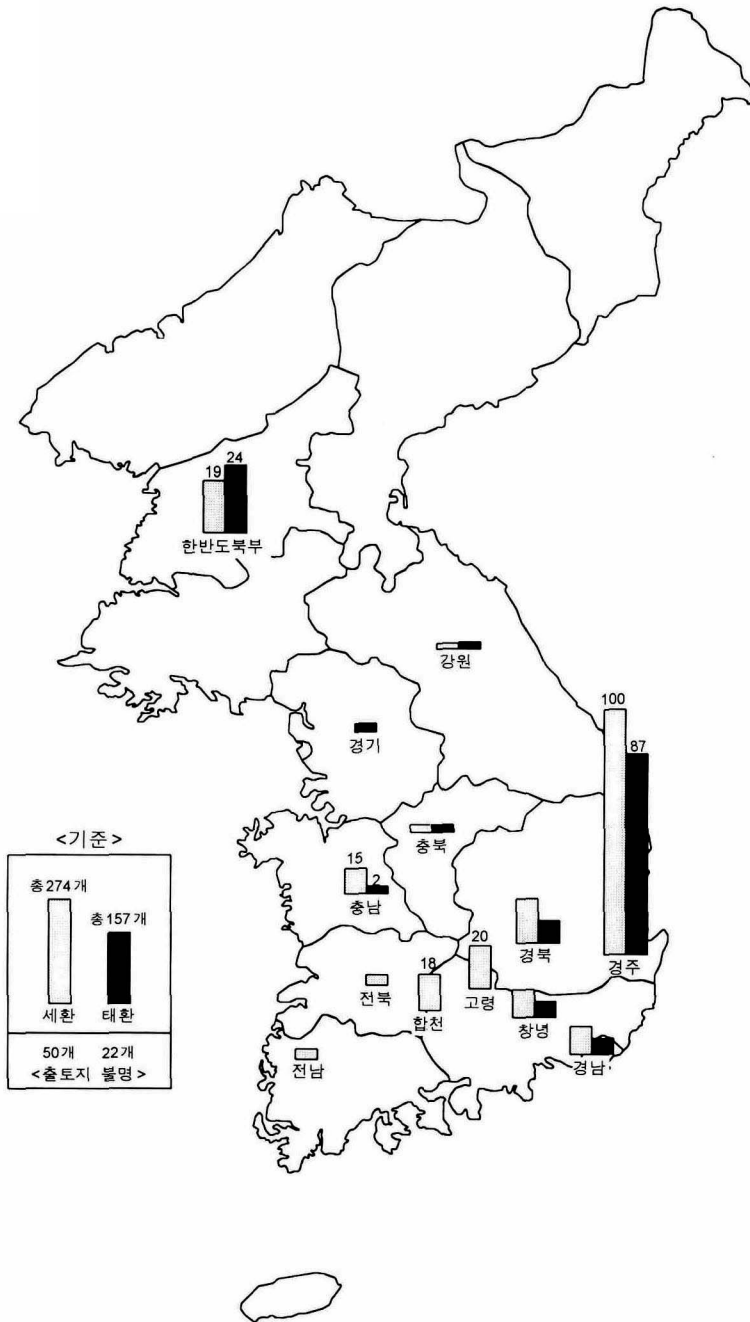


圖 1. <三國時代 垂下付耳飾의 分布圖> 1995년 여름 기준. 필자작성

없다. 출토된 위치에 따라서 耳飾과 垂飾의 구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 발굴되지 않았거나 발굴당시에 출토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알려진 耳飾들의 경우에는 耳飾과 垂飾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通例에 따라 우선 세환과 태환의 ‘主環이 있는 耳飾形 垂飾’들을 모두 ‘耳飾’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垂下部가 달린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그 형태적 변화와 기법적 발전을 알아보겠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耳飾의 製作技法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당시의 금속공예의 발전단계를 알려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삼국시대 耳飾의 금속공예사적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耳飾중에는 절대연대를 가진 작품이 없으며, 출토고분의 다른 부장품 중에서 절대연대를 가진 유물이 있을 경우에만 대략적인 상관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기법과 형식의 변천, 출토 고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前期, 後期를 합하여 總 5기로 耳飾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각 分期의 연대에 대해서는 출토 고분들의 연대와 관련하여 대략적인 존속기간을 추정하였다.<sup>6)</sup>

## II. 三國時代 耳飾의 形式과 製作 技法

### 1. 三國時代 耳飾의 形式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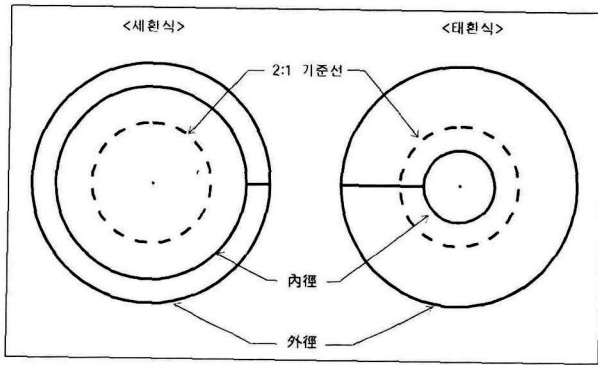
출토된 수백여점의 삼국시대 耳飾을 분류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삼국시대 耳飾 전체를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삼국시대의 耳飾은 크게 수하부의 유무에 따라 素環耳飾과 垂下付耳飾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주환의 크기에 따라 세환식과 태환식으로 나누어진다.

#### (1) 素環耳飾

素環耳飾은 耳飾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主環만 있는 것이다. 주환의 크기에 따라 세환식과 태환식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제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별이 사실상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耳飾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圖面 1). 즉 주환의 外徑과 內徑의 비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外徑과 內徑의 비가

6) 출토 고분의 절대연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병현,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몇몇 고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圖面 1〉 세환식과 태환식의 외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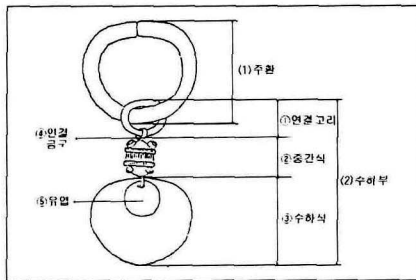
2:1이 되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內徑이 1 이하가 되는 것을 태환으로 정의하였다.

素鑲耳飾은 현재 출토된 삼국시대 耳飾의 약 반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素鑲耳飾의 경우에는 형식이나 제작기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편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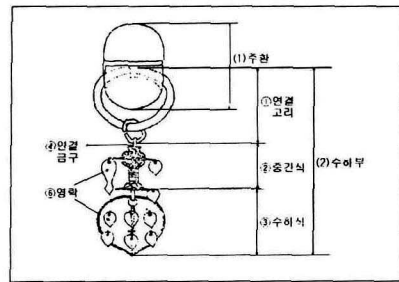
## (2) 垂下付耳飾

素鑲耳飾에 비해서 시대적, 지역적 특성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垂下付耳飾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sup>7)</sup>

垂下付耳飾은 主鑲部 아래에 垂下部가 달린 것이다. 垂下部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연결고리, 중간식, 수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환의 크기에 따라 세환식과 태환식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태환식에 수하부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조가 같다(圖面 2·3).



〈圖面 2〉 세환식 수하부이식의 구조



〈圖面 3〉 태환식 수하부이식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주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垂下付耳飾의 전체적인 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垂下付耳飾을 크게 다섯 형식으로 분류한 후 각 형식에서 세환식과 태환식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형식 내에서는 구조물의 변화에 따라 세분된다. 형식분류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7) 이하의 글에서 '耳飾'이라는 용어는 垂下付耳飾에 한정하여 사용하겠으며,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만 素鑲耳飾, 혹은 垂下付耳飾이라고 지칭하겠다.

〈표 1〉 〈垂下付耳飾의 形式分類表〉

형식	구 조		세환	태환	
1	주환+연결고리		○	○	
2	주환+수하식	1. 사슬 ○	○	○	
		2. 사슬 ○	○	×	
3	주환+복합수하식	1. 장식 ×	○	○	
		2. 장식 ○	○	○	
4	주환+중간식+수하식	1. 球體	a. 사슬 ×, 영락 ×	○	×
			b. 사슬 ○, 영락 ×	○	×
			c. 사슬 ○, 영락 ○	○	×
		2. 小環連接立方體	a. 영락 ×	○	○
			b. 영락 ○	○	×
		3. 小環連接球體	a. 소환연접구체	○	○
			b. 소환연접구체+반구체, 영락 ×	○	○
			c. 소환연접구체+반구체, 영락 ○	○	○
			d. 소환연접구체+반구체, 영락 ○, 주환 장식	×	○
		4. 上下에 金帽를 씌운 원통형	a. 상하 金帽(+원통형 옥)	○	×
			b. 상하 金帽+금판을 만 원통형	○	×
			c. 상하 金帽+소환연접 橫帶	○	×
			d. 상하 異形 金帽	○	×
			e. 위에만 소환연접반구체金帽+옥	○	×
		5. 타원형 中空球	타원형 中空球의 표면에 菱形 돌기와 세립 세공	○	×
		6. 특수형	금판을 만 원통형 중간식+금판을 오려서 꺾은 수하식	○	×
		7. 중간식의 반복	a. 코일형 연결구 반복	○	○
b. 반구체+영락+사슬을 반복	○		○		
c. 中空球 반복	○		○		
5	주환+수하부 2조이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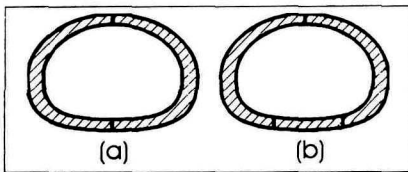
## 2. 三國時代 耳飾의 製作 技法

삼국시대의 耳飾은 고분출토 금속공예품중에서 가장 발전된 기법을 보여주는 분야이다. 고분출토 금속공예품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기법적인 면에서는 기본적인 판금기법과 볼트식 연결방식 등을 사용하여 매우 단순하다. 그에 비해서 耳飾은 금뿔기법, 鑲金細工技法 등 뛰어나게 발전된 기법을 응용하여 제작된 고도의 금속공예품으로서, 당시 발전된 금속공예 기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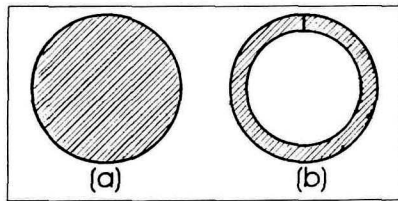
삼국시대 耳飾의 제작기법은 형태를 형성하는 形成技法과 형성된 형태 위에 표면을 장식하는 表面裝飾技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기법인 형성기법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으나, 표면장식기법은 초기에 비해서 후대에 점차 다양하게 발전한다. 그러므로 耳飾의 시간적, 지역적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표면장식기법이다.

### (1) 形成技法

耳飾은 구조의 각 부분별로 제작되어 연결금구로 서로 연결되며, 각 부분별로 서로 다른 제작기법이 사용되었다. 대체로 原形을 제작하는 데에는 금판을 이용한 판금기법이 가장 많이 쓰였으나, 주조기법과 細線技法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圖面 4〉 태환식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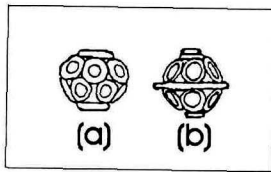


〈圖面 5〉 세환식의 단면도

형성기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도의 제작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금뿔기법이 초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금뿔기법은 대부분의 耳飾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태환식 주환의 제작에 사용된 금뿔기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태환식의 단면을 보면 2-3장의 금판을 뿔질(soldering)로 붙여서 만들었다(圖面 4). 그러나 그 접합부분의 처리가 깔끔하고 뿔의 불필요한 흐름을 거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1장의 금판을 말아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한편 세환식 주환의 경우에는 속이 찬 捧을 등글게 구부려서 만들거나, 또는 속이 빈 파이프형태의 봉을 구부려서 만들었다(圖面 5).

중간식은 대부분의 형태가 뿔질을 이용한 판금기법으로 제작되며, 간혹 주조로 제작되기도 한다. 중간식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細線을 뿔으로 연결하여 만드는 小環連接球體와 小環連接立方體 등이다. 이 중에서 小環連接球體는 지역적으로 형태의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圖面 6〉 小環連接球體

주목된다. 경주지역의 小環連接球體의 경우, 중간에 새김눈 금선대를 한 줄 돌리고 소환을 대칭으로 맞붙였다(圖面 6-b). 그러나 한 반도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중간에 금선 없이 직접 소환을 서로 엮여서 붙인 형태(圖面 6-a)를 한 것이 많다.

수하식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단순하게 금판을 오려서 만들었으나 시대가 내려갈수록 형태가 입체화되며 표면장식이 복잡해진다.

## (2) 表面裝飾技法

耳飾의 표면장식기법은 주로 중간식과 수하식에 사용되었다.

耳飾의 표면장식기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며 가장 다양하게 발전하는 기법은 彫金技法의 일종인 ‘새김눈(刻目) 기법’이다. 세선의 표면에 일정한 간격의 눈금을 새겨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새김눈이 있는 금선은 다양한 세선세공기법에 응용되었다.

耳飾의 표면을 장식하는 가장 뛰어난 기법은 細線과 細粒을 素地金屬의 표면에 직접 붙여서 장식하는 소위 ‘鑲金’기법이다. 일반적으로 鑲金細工은 필리그리(filigree)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耳飾에 사용된 鑲金細工技法의 경우에는 입자를 사용하는 ‘細粒細工(granulation)’과 가는 선을 사용하는 ‘細線細工(협의의 필리그리)’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鑲金細工技法을 편의상 세선세공기법과 세립세공기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sup>8)</sup>

앞에서 언급한 새김눈금선을 비롯하여 각종 세선으로 형태를 만들거나 장식을 하는 것은 모두 삼국시대의 보편적인 제작기법이었던 세선세공기법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 세립세공기법은 초기에는 드물다가 후기에 보편화되는 고도의 표면장식기법이다. 삼국시대의 耳飾에 사용된 세립세공기법은 실제로는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누어진다. 초기의 耳飾에 사용된 세립세공기법은 조금 큰 金粒을 땀질로 표면에 붙이는 초보적인 방식이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여러 개의 입자를 동시에 한 표면에 붙이는 기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아마도 鹽化銅의 화학반응을 이용한 본격적인 세립세공기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법의 발전은 耳飾의 시대적 변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삼국시대 耳飾의 편년 설정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8) 鑲金細工技法에 대해서는 Wilhelm Braun-Felfweg, *Metal Design & Technique*(New York, 1975), pp.202-205와 Oppi Untracht, *Jewelry Concepts and Technology*(New York, 1982), pp.173-184, pp.348-363. 참조.

### Ⅲ. 三國時代의 前期 耳飾

이상에서 고찰한 형식과 제작기법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여러 耳飾들의 상관관계, 출토고분의 연대 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삼국시대의 耳飾을 총 5단계로 편년하였다. 이 5단계는 耳飾의 지역적 분포상황에 의해,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커다랗게 묶일 수 있다.

먼저 전기의 耳飾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垂下付耳飾의 분포가 경주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耳飾 제작에 사용된 세립세공기법은 초보적인 단계로서, 제1기에는 볼 수 없다가 제2기부터 초보적인 기법이 간혹 사용된다.

#### 1. 第1期(4세기 중엽)

제1기는 금속제 耳飾의 제작이 시작된 시기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素環耳飾만 발견된다. 垂下付耳飾은 경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본격적인 垂下付耳飾은 경주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이 시기의 垂下付耳飾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작고 단순한 양식이다. 표면장식기법은 월성로 출토 耳飾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세립세공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耳飾은 거의 없다.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耳飾 중에서 현재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것은 고분의 편년이 가장 올라가는 월성로와 황남동 109호분에서 출토된 耳飾이다. 황남동 109호분 4곽에서 출토된 耳飾은 주환에 연결고리만 달린 간단한 형식이다.<sup>9)</sup> 이렇게 단순한 형식의 耳飾은 한반도 북부 평양역전고분군 ‘永和九年(353)’銘塼 출토고분에서도 발견되었다(圖 2).

한편 이와 동시대, 또는 올라가는 시대로 알려진 경주 월성로 고분군에서는 발전된 기법으로 제작된 垂下付耳飾이 발견되었다.<sup>10)</sup> 월성로 가-13호분에서 출토된 細環耳飾(圖 3)은 사슬을 이용하여 영락이 달린 반구체를 연결하고, 맨 아래에 심엽형 수하식을 달았다. 이러한 형태의 耳飾은 경주지역에서는 그다지 흔한 형식이 아니며, 대체로 冠 수식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sup>11)</sup> 월성로 출토 太環耳飾(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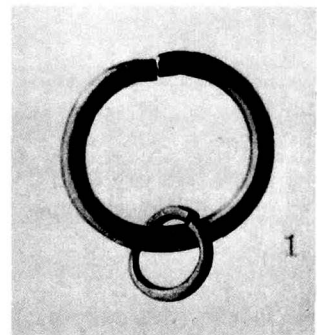


圖 2. 金製 세환이식(1형식) 평양역전고분군 永和九年銘塼 출토 고분출토. 하한 353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9) 朝鮮總督府,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1937), p.35, 圖 1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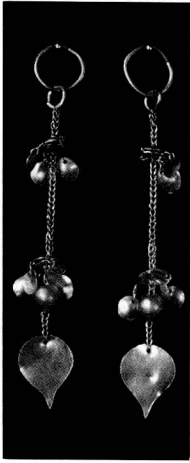


圖 3. 金製 세환이식 (4-7b형식). 경주 월성로 고분군 가-13호분 출토. 길이 1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4. 金製 태환이식 (4-7a형식). 경주 월성로 고분군 가-13호분 출토. 길이 2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 뿔, 새김눈 금선을 이용한 세선세공기법, 파란 옥을 감입한 嵌玉技法 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예로 볼 때, 경주지역에서는 이미 초기부터 상당한 수준의 금속공예가 발전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제1기의 대표적인耳飾으로는 황남대총 남분 출토의 각종耳飾들이 있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의耳飾은 형식이 매우 다양하며, 수량

도 많은 편이다.<sup>12)</sup> 小環連接立方體를 중간식으로 사용한 예, 小環連接球體와 반구체를 연결한 중간식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圖 5),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아무 장식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대가 내려가면 小環連接球體와 반구체를 연결한 중간식에 여러 장식이 붙으면서 변화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제1기 양식의耳飾들의 수하식은 대부분 금판을 오려 만든 단순한 형태이며, 수하식에는 표면장식이 거의 없는 점이 특징이다.<sup>13)</sup> 이 시기는 출토 고분의 상관연대로 미루어 4세기 중엽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0) 월성로 고분의 연대는 다른 경주지역의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장 초기의 적석목곽분인 황남동 109호분 3·4곽보다 以前이거나, 혹은 同 시대로 보고 있다. 월성로 고분의 연대에 관해서는 崔秉鉉,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 - 慶州·月城路·福泉洞·大成洞 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0(1993.10.), pp.101-143과 宋義政, 『慶州月城路 出土遺物の 分析 - 상대편년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참조. 그러므로 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제품들이 아마도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경주지역의 금제품들로 알려져 있다. 李蘭暎,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一志社, 1992), p.188 참조.
- 11) 이 이식의 형식과 제작기법은 後期 제3기의 서봉총 冠 垂飾이나 금관총 冠 垂飾과 연결되는 것으로, 초기에 나오는 형식으로는 매우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12)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파손된 것을 합하여 모두 39점(15쌍 이상)의 垂下付耳飾이 출토되었으며, 금제, 금동제가 주류를 이룬다.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發掘調査報告書 - 本文』(1994), pp.83-87 참조)
- 13) 제1기 양식의耳飾이 출토된 고분중 황남동 98호분 남분에서는 세립세공기법에 의해 장식된 반지와 금방울 등이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경주지역에서는 세립세공기법에 대해서 이미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耳飾 제작에 세립세공기법이 응용되는 것은 제3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금속공예품들의 제작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圖 5. 金製 이식(좌: 4-3b형식 / 중: 4-2a형식 / 우: 4-1a형식). 경주 황남동 황남대총 남분출토.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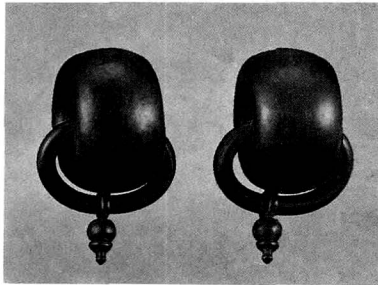


圖 6. 金製 태환이식(3-1형식). 경주 황남동 황남대총 북분출토. 길이 4.6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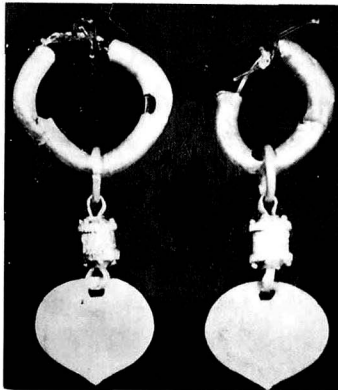


圖 7. 金製 세환이식(4-4b형식). 경주 황남동 황남대총 북분출토. 길이 5.2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2. 第2期(4세기 말엽)

제2기에도 垂下付耳飾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경북 경산 지역까지 그 분포가 넓어진다. 동시에 한반도 북부지방에서는 독특한 형식의 耳飾이 제작되었다.

중국 吉林省 麻線溝 1호묘에서 출토된 耳飾은 중간식과 수하식이 떨어지지 않은 호리병형의 독특한 복합수하식이 달려 있다.<sup>14)</sup>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식의 耳飾이 경주 황남대총 북분(圖 6)에서도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두 지역간의 밀접한 교섭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2기의 경주지역에서는 이 시기부터 細粒 몇 알갱이를 뿔로 표면에 부착시킨 초보적인 세립세공기법이 耳飾 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가장 이른 예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細環耳飾이다(圖 7). 上下의 金帽 사이에 원통형의 금판을 말아 넣은 중간식으로, 금모 위를 초보적인 세립세공기법으로 장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의 耳飾들은 1기에 비해 중간식과 수하식에 영락장식을 가득 달

14)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吉林輯安麻線溝一號壁畫墓」, 『考古』 98(1964.10), 圖 4-7 참조.

아서 매우 화려해진 것이 특징이다. 제2기는 대표적인 고분인 황남대총 북분의 연대를 중심으로 4세기 말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5)</sup>

#### IV. 三國時代의 後期 耳飾

후기에는 垂下付耳飾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세립세공기법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들에서는 제4기가 되어야 본격적인 세립세공기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각 지역에서는 각각의 독특한 형식을 발전시켰으며, 전기에 비해서 제작기법이 다양하고 세련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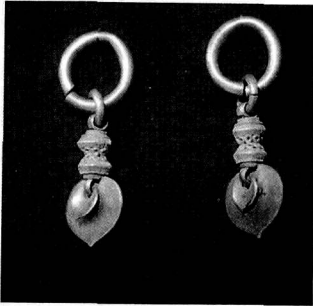


圖 8. 金製 세환이식(4-4c형식).  
경주 노서동 서봉총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1. 第3期(5세기 초엽 - 5세기 중엽)

제3기부터 垂下付耳飾은 전국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표면장식기법의 발전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 경주지역에서만 본격적인 세립세공기법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초보적인 세립세공기법이 사용되었다.

경주지역에서는 耳飾의 제작기법이 거의 완성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세립세공기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입자를 일렬로 늘어놓아 표면에 붙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한 예로는 서봉총에 출토된 상하 금모의 중간식을 가진 세환이식이 있다(圖 8). 또한 유리를 이용한 嵌玉技法이나, 금판을 꼬아서 수하식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이용되는 등 다양한 표면장식 기법이 발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금관총, 금령총 등에서 출토된 화려한 이식들은 그러한 기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圖 9). 한편 경주지역과 유사한 형식과 기법으로 제작된 耳飾들이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일대에서도 발견되어 이 시기의 경북지역이 경주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다른 지역에서는 경주지역에 비해서 제작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耳飾들이 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가야지역이라고 알려진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함천 옥전고

15) 崔秉鉉, 앞책(1992), p.374 참조.

16) 대구지역의 고분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발굴되었으며, 耳飾은 주로 내당동과 비산동에서 출토되었다. 보고서로는 朝鮮總督府, 『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1930)과 『昭和13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19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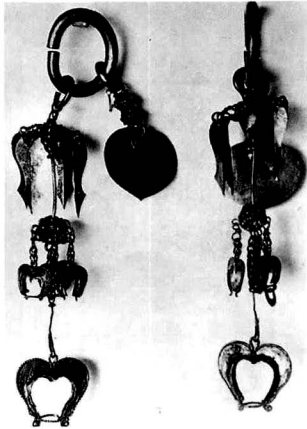


圖 9. 金製 세환이식(5형식). 경주 노서동 금관총 출토. 길이 10cm. 국립경주박물관소장

분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耳飾들은 그 형식이 경주지역의 耳飾과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각 부분을 연결할 때 사슬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圖 10), 두 번째, 수하식이 납작한 판 형태가 아니라 뿔뿔로 접합해 만든 열매형이나 원추형이며, 세 번째, 새김눈 금선과 함께 조금 큰 입자를 뿔뿔로 붙여 표면을 장식하는 초보적인 세립세공기법을 사용하고 있다(圖 11).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본격적으로 세립을 표면장식에 사용하기 시작한 같은 시기의 경주지역 耳飾에 비해서, 이 지역들의 제작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垂下付耳飾이 드문 편이지만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식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제 細鑲耳飾(圖 12)을 살펴보면, 중간식을 중공구 대신 구슬옥을 사용하고, 연결고리 없이 직접 주환에 꼬아 묶어서 중간식을 연결한 방식 등이 특징인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 충남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독특한 형식이다.



圖 10. 金製 세환이식(4-1b형식). 경북 고령군 지산동 44호분 11호석곽 출토. 계명대학교박물관소장



圖 11. 金製 세환이식(5형식). 경남 합천군 옥전 28호분 출토. 길이 10.1cm. 경상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12. 金製 세환이식(4-1a형식). 傳 공주출토.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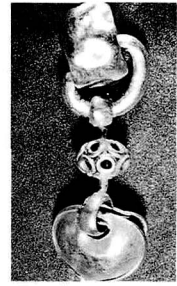


圖 13. 金製 태환이식(4-3a형식). 평남 대동군 출토

한반도 북부 지역의 垂下付耳飾은 복합수하식을 탈피하여, 중간식과 수하식을 모두 갖춘 4형식으로 발전하였다. 평남 대동군에서 출토된 太鑲耳飾은 小環連接球體의 중간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결고리가 굵은 점이 특징이다(圖 13). 이와 유사한 耳飾이 충북 진천 회죽리 등 한반도 중부와 북부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되어 주목된다.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식의 耳飾들은 아마도 427년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기의 연대는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서봉총 출토 耳飾의 연대를 고려하여,<sup>17)</sup> 400년을 전

후한 시기부터 시작되어 약 60여년 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2. 第4期(5세기 말엽 - 6세기 초엽)

제4기는 垂下付耳飾이 가장 발달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세립세공기법이 보편화 되어 합천이나 충남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고유한 형식의 垂下付耳飾이 완성되어 가장 발달하고 화려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경주지역의 제작기법이 가장 발달한 점이 주목된다. 세선과 세립을 이용하여 龜甲文과 같은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역시 경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상하 금모를 사용한 중간식에서 볼 수 있다.<sup>18)</sup> 상하 금모에 소환연접체 두 줄을 끼워 넣은 중간식은 제2기의 상하 금모 사이에 원통형 금판을 끼워 넣은 형식(圖 7)에서 발전한 것이며, 제3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圖 8). 제4기에는 그러한 형식과 함께, 황오동에서 출토된 細鑲耳飾(圖 14)에서 볼 수 있듯이 금판을 +자형으로 접어서 금모를 만드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게 된다. 황오동 출토 細鑲耳飾은 수하식에서도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즉, 금판 한 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두 장의 금판을 맞붙여서 입체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세립으로 문양을 장식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황오동 출토 耳飾은 제4기 경주지역 耳飾의 전형적인 예의 하나이다.

이 시기 경주지역 耳飾의 또 다른 특징은 타원형 중공구 위에 작은 마름모꼴 금판을 여러 개 붙이고 그 주위를 금립으로 장식한 화려한 중간식에 있다. 이러한 형식의 예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호우총에서 출토된 細鑲耳飾으로, 金版과 金粒이 어우러져서 龜甲文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圖 15). 이와 유사한 耳飾이 천마총에서도 발견되어 주목된다(圖 16). 천마총에서 출토된 細鑲耳飾의 형식은 제2기 황남대총 북분출토의 복합수하식을 가진 耳飾의 신라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복합수하식의 제작방법, 금판과 금립을 이용하여 龜甲文에 가까운 문양을 표현한 점 등으로 볼 때, 제4기의 耳飾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20)</sup>

17) 서봉총에서는 '延壽元年銘' 銀盒이 출토되었다. 은합의 연대에 대해서는 '391년설', '451년설', '511년설' 등이 있으며(金昌鎬, 「古新羅 瑞鳳塚의 年代問題(1)」, 『伽耶通信』 13·14(1985), pp.64-76), 본 논문에서는 최병현의 391년설을 참조하였다(최병현, 앞책(1992), pp.374-377).

18) 이러한 형식의 중간식은 '주관알형'이라고도 불린다.

19) 이러한 형식의 이식은 초기에는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한반도 북부양식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제3기부터는 경주지방 특유의 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주조기법이 아니라 땀에 의해 중공구와 원추형을 제작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제3기의 예로는 경주 침성로 1호분 출토 세환이식과 경북 의성 탐리고분 2묘곽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圖 14. 金製 세환이식 (4-4d형식). 경주 황오동 출토. 길이 8.1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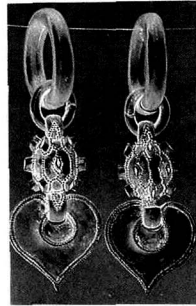


圖 15. 金製 세환이식 (4-5형식). 경주 노서동 호우총 출토. 길이 6.7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圖 16. 金製 세환이식 (3-2형식). 경주 황남동 천마총 출토. 길이 5cm. 국립경주박물관소장



圖 17. 金製 태환이식 (4-3d형식). 경주 보문동 부부총 婦墓 출토. 길이 8.7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경주지역 耳飾의 마지막 특징은 太環耳飾의 정형화이다. 이 시기의 太環耳飾의 기본적인 형태는 小環連接球體와 반구체를 붙인 중간식이다. 그러나 같은 형식의 앞 시기 작품과는 달리, 영락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화려해진다. 또한 세선과 세립을 이용하여 중간식, 수하식 뿐만 아니라 주환에까지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가장 발달된 예가 바로 경주 보문동 부부총 婦墓에서 출토된 금제 太環耳飾이다(圖 17). 특히 금선과 금립으로 구성된 화려한 結節龜甲文의 표현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식이며, 세공기술로 볼 때에도 가장 우수한 예에 속하는 작품이다.



圖 18. 金製 세환이식(4-1c형식). 경북 고령군 지산동 45호분 2호석실 출토. 길이 6.5cm. 계명대학교박물관소장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제4기의 경주지역에서는 세선과 세립을 이용하여 龜甲文을 비롯한 화려한 문양을 표현하는 鍍金細工技法이 발전하여, 耳飾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가장 완성되고 뛰어난 양식을 보여준다.

제4기의 고령과 함천 등 지역에서는 대부분 세환식만 발견되고 있다. 고령 지산동 출토 細環耳飾을 보면(圖 18), 새김된 금선의 사용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심엽형의 금판을 영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주지역 耳飾과는 달리, 작은 중공구를 영락으로 달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세립세공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뿔을 이용한 초보적인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 대부분의 대형고분들의 상대연대 편년이 어느 정도 공통된 것에 비해서, 천마총의 연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하고 있는 최병현의 저서에서는 천마총의 연대를 금관총, 금령총(본 논문 편년 제3기) 등과 같은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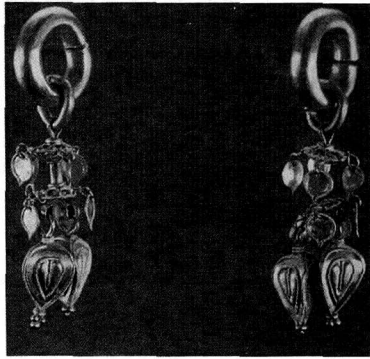


圖 19. 金製 세환이식(5형식). 경남 합천군 옥전 M6호분 출토. 길이 7.7cm. 경상대학교박물관소장

한편, 합천 옥전지역에서는 경주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세립세공기법을 사용한 예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합천 옥전출토 耳飾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옥전 M4호분, M6호분 등에서 출토된 것으로, 경주지역 고유의 小環連接球體와 小環連接立方體 등을 이용한 중간식 아래에 합천지역 특유의 형태인 산치자형 수하식을 매달았다(圖 19). 이러한 복합적 경향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으로, 경주지역과의 문화적교섭을 암시해준다. 또한 본격적인 세립세공기법으로 장식된 산치자형 수하식의 표면에는 두드러서 문양을 장식하는 압출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기법은

경주지역 耳飾에서는 볼 수 없다. 한편 옥전에서는 충남 공주군 무령왕릉 왕비의 耳飾(圖 20)과 유사한 양심의 耳飾도 발견되어,<sup>21)</sup> 이 지역의 문화적 교섭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520년의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되는 무령왕릉 출토 耳飾들은 이 시기 충남지역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령왕릉 왕비의 耳飾(圖 20)은 앞 시기부터 사용되었던 충남지역 고유의 방식을 따라 제작된 것으로, 푸른 유리옥의 중간식을 금선으로 꿰어서 주환에 연결한 방식이 앞 시기의 작품(圖 12)과 일치한다.



圖 20. 金製 세환이식(5형식). 충남 공주군 무령왕릉 왕비 출토. 523년 하한. 길이 11.8cm. 국립 공주박물관소장

무령왕릉 왕의 耳飾(圖 21)은 형식적으로는 상하의 금모를 사용하고 있어서 경주지역의 耳飾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금모의 형태나 감옥장식 등은 매우 독특하며, 중간식에 사용된 小環連接球體가 북부지역 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이 경주지역 耳飾과는 다르다. 그런데 小環連接球體의 일부분에 땀이 흘러 넘쳐 막힌 부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의 금속공예가 같은 시기의 경주지역 耳飾에 비해서 제작기법이 조금 소홀해 보인다.

한편 이 시기 한반도 북부지역의 耳飾은 제3기에 비해서 그다지 변화가 없으며, 그 예도 드문 편이다.

제4기에는 세선·세립세공기법을 비롯한 각종 제작기법이 각지에서 가장 발달한 시기였으나, 역시 경주지역에서의 제작활동이 가장 발달하였다. 한편 耳飾의 형식을 통하여 당시 각 지

21) 이러한 이식은 옥전 M11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소환연접구체와 유리옥의 사용, 주환과 중간식의 연결 방법 등이 무령왕릉 출토 이식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慶尙大學校博物館, 『陝川玉田古墳群 V - M10·M11·M18號墳』(1995), 원색사진 5-上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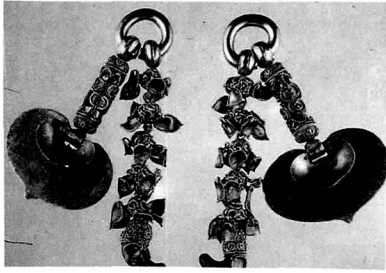


圖 21. 金製 세환이식(5형식). 충남 공주군 무령왕릉 왕 출토. 523년 하한. 길이 8.3cm. 국립공주박물관소장



圖 22. 金銅製 태환이식(4-7a형식). 경주 황룡사지 목탑 심초석 출토. 553-645년경 하한. 길이 약 10cm. 국립경주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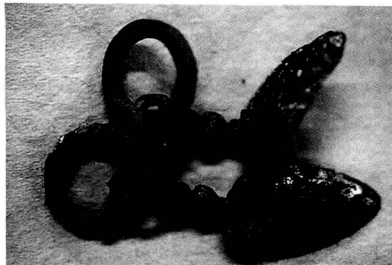


圖 23. 金銅製 세환이식(4-1a형식). 충남 부여군 염창리고분 출토. 538년 이후. 국립부여박물관소장

역 간의 활발한 문화적 교섭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북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제4기에 가장 완숙한 기법과 정돈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제3기 이후인 5세기 말엽 경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주지역에서 적석목곽분이 소멸되는 6세기 전반경과,<sup>22)</sup> 충남지역의 무령왕릉의 연대(523년)에 해당하는 6세기 전반까지에 해당한다.

### 3. 第5期(6세기 중엽 - 7세기 초엽)

제5기는 垂下付耳飾의 제작이 갑자기 쇠퇴한 시기이다. 급격하게 쇠퇴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경주 황룡사지 출토 금동제 耳飾과 부여 출토 耳飾들이 있다.

황룡사지 목탑 심초석안에서 발견된 사리구중에 포함된 太鑲耳飾 1쌍은 금동제로서 부식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圖 22), 황룡사의 창건연대인 553년과 황룡사 목탑 창건연대인 645년경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되어 연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수하식의 표면에 점을 찍어 장식한 점선조 기법이 보이는데, 耳飾에서 점선조기법이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또한 전 시기까지 매우 발달하였던 세립세공기법이 사용되지 않고 대신 점선조 기법을 사용한 것은 이 시기의 耳飾 제작기법이 상당히 쇠퇴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황룡사지 출토의 太鑲耳飾이 제작되었던 시기에는 이미 경주지역의 耳飾 제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제가 부여로 遷都한 538년 이후의 작품들이라고 생각되는 충남 부여 출토의 耳飾들도 작고 간략한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앞 시기에 비해서 耳飾의 제작기법이 쇠퇴하였음을

22) 崔秉鉉, 앞 책(1992), pp.368-373 참조.

알 수 있다(圖 23).

이 시기에는 경주·충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는 耳飾이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며, 제작기법이나 형식들이 後期에 비하여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이들 쇠퇴기의 耳飾 연대는 黃龍寺지 출토 耳飾의 연대와 부여 천도 이후의 시기를 고려하여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엽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時期別로 살펴 본 垂下付耳飾의 形式分布狀況表〉

형 식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5 기
1	1	[Shaded bar]				
	2	[Shaded bar]				
2	2-1	[Shaded bar]				
	2-2		[Shaded bar]			
3	3-1		[Shaded bar]			
	3-2		[Shaded bar]			
4	1	4-1a	[Shaded bar]		[Shaded bar]	[Shaded bar]
		4-1b		[Shaded bar]		
		4-1c			[Shaded bar]	
	2	4-2a	[Shaded bar]			
		4-2b			[Shaded bar]	
	3	4-3a			[Shaded bar]	
		4-3b	[Shaded bar]			
		4-3c		[Shaded bar]		
	4	4-3d				[Shaded bar]
		4-4a			[Shaded bar]	
4-4b			[Shaded bar]			
4-4c			[Shaded bar]			
4-4d					[Shaded bar]	
4-4e				[Shaded bar]		
4-5				[Shaded bar]		
4-6			[Shaded bar]			
7	4-7a	[Shaded bar]				
	4-7b	[Shaded bar]				
	4-7c		[Shaded bar]			
5	[Shaded bar]					

## V. 三國時代 耳飾의 意義와 影響

이상에서 간략하게 삼국시대 垂下付耳飾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발전단계에 따라서 형식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형식만 가지고 耳飾을 편년해 왔다. 그것은 어떠한 형식이 일정한 시기 동안만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쏠 시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형식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耳飾의 제작연대를 형식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형식, 제작기법, 출토고분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서 편년해야 한다.

<표 3> <地域別로 살펴 본 垂下付耳飾의 形式分布狀況表>

형 식		경주	대구	충남	고령	합천	중부	북부
1		●●●●	●●●●	●●●●	●●●●	●●●●	●●●●	●●●●
2	2-1	●●●●	●●●●	●●●●				●●●●
	2-2	■			■	■		■
3	3-1	■						■
	3-2	■	■				■	■
4	1	4-1a	■	■	■	■		
		4-1b				■	■	
		4-1c				■	■	
	2	4-2a	■	■				■
		4-2b					■	
	3	4-3a						■
		4-3b	■	■				
		4-3c	■	■				
		4-3d	■	■				
	4	4-4a	■				■	
		4-4b	■	■				
		4-4c	■		■		■	
		4-4d	■					
		4-4e	■		■			
	4-5	■						
4-6	■							
7	4-7a	●●●●	●●●●		●●●●			
	4-7b	■						
	4-7c	■	■					
5		●●●●	●●●●	●●●●	●●●●	●●●●	●●●●	

(참고) ●●●● : 공통 ■ : 경주고유 ■ : 고령·합천고유 ■ : 충남고유 ■ : 북부고유

흥미로운 것은 형식과 출토 지역의 관계이다. 형식과 출토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의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출토 빈도와는 상관없이 지도상에서의 분포를 살펴 본 것으로,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耳飾의 형식은 지역적 특성 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삼국시대 垂下付耳飾의 원류는 이제까지 중국 한나라 낙랑의 珮璫이었다고 생각되어 왔다.<sup>23)</sup> 그러나 평양 정백리 고분에서 출토된 漢代의 珮璫을 살펴보면(圖 24), 삼국시대의 耳飾과는 형태나 재료 등의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나라의 이당은 모두 玉製이며, 주환의 형태도 고리가 아니라 실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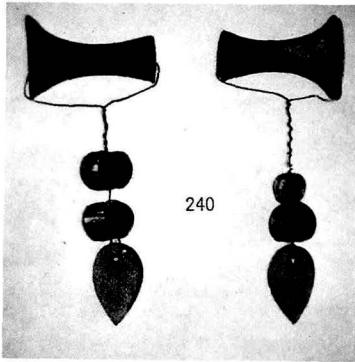


圖 24. 珮璫. 평양 정백리 고분 출토. 漢代. 국립중앙박물관소장



圖 25. 金耳飾. 遼寧省 義縣 保安寺古墓 출토. 晉代. 길이 8.9cm. 遼寧省博物館소장

그에 비하여 최근 알려진 중국 동북지방의 흉노, 선비, 부여 족들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금속제 細環耳飾들과의 관련성이 더 주목된다. 이러한 이식들은 대부분 金製 細環耳飾으로 제작 기법이 상당히 단순하다. 遼寧省 西豐縣 西岔溝墓群에서 출토된 금제 세환이식이나,<sup>24)</sup> 遼寧省 義縣 保安寺古墓에서 출토된 금제세환이식의 예를 보면(圖 25),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을 가진 구조, 세환의 형태 등에서 우리 나라 耳飾의 형식적 기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前漢代로 추정되는 西岔溝유적과 晉代(265-420)로 추정되는 保安寺古墓유적은 모두 북방민족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金製 耳飾을 착용하는 풍습은 중국 漢族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과 관련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풍습의 기원과, 耳飾이 특별히 경주지역에서 발전한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삼국시대의 耳飾은 일본에까지 그 영향을 널리 미쳤다. 일본의 와리쓰까(割塚)고분,

23)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1986. 제3판), p.235 참조.

24) 遼寧省博物館 編, 『遼寧省博物館』中國の博物館 第3卷(東京: 講談社・文物出版社, 1982), 圖 45 참조.

니이자와센주카(新澤千塚) 등에서 출토된 예들은 일본 학계에서도 전래품으로 알려져 있는 금속공예품이다(圖 26).<sup>25)</sup> 이러한 耳飾들의 형식과 제작기법은 합천 지역의 耳飾들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圖 26. 金製 세환이식. 좌: 일본 新澤千塚 109호분 출토. 우: 일본 大和郡山市 割塚古墳출토.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소장

일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전했던 삼국시대의 耳飾은 6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쇠퇴하여 7세기경에는 거의 사라지고 소환이식만 소수 발견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쇠퇴의 원인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불교의 전파와 발전이라는 점이며, 또 한 가지는 신라에서 중국 唐의 복식제도를 채택하면서 고유의 풍습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불교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면, 경주지역의 수하부이식의 착용과 副葬의 풍습아래에는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주지역의 고대 종교의식이나 종교지배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圖 27. 金製 풍경. 경북 감은사지 동3층석탑 출토. 7세기. 문화재연구소 소장

통일신라시대의 耳飾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은 고분구조가 석실분으로 바뀌어 대부분 도굴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의 기록에는 비교적 충실한 『三國史記』 色服條의 기록에 耳飾이 나오지 않는 점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삼국시대의 垂下付耳飾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삼국통일이후로 우리 나라의 耳飾의 양식은 완전히 바뀌어 삼국시대 耳飾 양식은 단절되었으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耳飾을 제작하였던 뛰어난 금속 세공기술은 계속 이어져서, 통일신라 시대의 뛰어난 불교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기법적인 면에서 후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최근 발견된 감은사 동탑출토 사리장엄구의 하나에서 볼 수 있다(圖 27). 이 장식은 초보적인 세립세공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예로 보아 耳飾을 제작하던 금속세공기법은 통일신라시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금속세공기법은 삼국시

25) 일본 고분출토의 수하부이식 중에서 초기의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었으나, 6세기 이후에는 일본국내에서도 제작되었다고 한다. 龜井正道, 『衣服と裝身具』, 『日本の考古學』 古墳時代 下(東京: 1966), p.226 참조.

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삼국시대 경주지역의 발달한 금속세공기법을 바탕으로 시대상황에 맞추어 변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삼국시대 耳飾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뛰어난 금속세공기법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I. 結 論

이상에서 삼국시대 耳飾의 변천과정을 형식과 제작기법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작기법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기법은 표면장식기법의 하나인 세립세공기법의 발전과정이었다. 제작기법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물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많은 유물을 실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자료는 實見의 어려움 때문에 도판과 도면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오류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삼국시대 이식 전체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이식의 제작기법 연구를 통하여 이식의 변천과정을 前·後期 총 5기의 단계로 파악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수하부이식들은 지역적으로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偏在해있고, 시기적으로는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엽경의 약 150-160년간에 偏在하고 있다.

앞으로 耳飾의 원류와 영향관계, 금속공예기법의 원류와 그 영향 등에 대해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고대 한국의 금속공예의 발전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 A Study of Ear Ornament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Joo, Kyeong mi

Among various metal craft work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ear ornaments are the most prominent in their formal and technical diversity and complexity. Most were made from the mid-fourth to the mid-sixth century A. D. Although they are found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r, those excavated in the Kyongju area comprise the majority and show the most advanced techniques such as filigree and granulation.

Diverse forms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of ear ornaments reflect chronological and regional differences. It is possible to clarify them either by form or by technique. Although previous studies tended to focus more on form as a clarification criterion, technique seems more crucial for analyzing their chronological and regional development.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xamine ear ornament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on the basis of manufacturing technique.

Ear ornaments were manufactured in two steps: 1)making of shape, and 2)surface decoration.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for our purpose, since we can find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 technique. Based on the granulation technique alone, the development of the ear ornament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can be divided chronologically into five phases.

During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ear ornaments were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yongju area. They are simple in form and technique. In phase I, no granulation technique was used. In phase II, a primitive

granulation began to be used.

In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ear ornaments were made in most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well developed forms and techniques, particularly in surface decoration. They showed much more elaborate design. In the Kyongju area, the granulation technique was most highly advanced during this period. In phase III, the granulation technique reached full-development only in Kyongju. Then during phase IV, splendid filigree and granulation technique spread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Ear ornaments of this phase, evidence the finest technique and a variety of forms. During phase V, however, such masterful techniques became rare. Ear ornaments of this period showed deterioration both in form and in technique, which marks the end of the splendid tradition of ear ornament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Ear ornament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had a great influence on Japanese ear ornaments of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A.D. Moreover, the technique used in the making of ear ornaments affected the technique of metal crafts in the Unified Silla period.